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AI 기술주로 활짝 핀 나스닥

- 주요 지수 전반적 상승: 나스닥 1.3% 상승
- 엔비디아, AI 수요 증가로 4.3% 주가 상승
- 미시간 소비자 심리지수, 4월 52.2로 하락

Summary

미국 증시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협상 기대감과 주요 기술주의 실적 호조에 따라 4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함. S&P 500 지수는 0.74% 상승한 5,525.21로 마감했으며, 나스닥 지수는 1.26% 오른 17,382.94로 마감함.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도 0.05% 상승하여 40,113.50에 거래를 마쳤고, 중소형주 중심의 러셀 2000 지수는 0.0014% 소폭 상승, 1,957.62로 마감함.

주요 기술주 중에서는 인공지능(AI)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엔비디아가 4일 연속 상승세를 보이며, 4.3% 상승한 111.01달러로 마감함. 모건스탠리가 엔비디아의 2027년 매출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AI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등 대형 기술주들도 모두 상승세를 보임. 반도체주 역시 미중 무역 협상에서 긍정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으로 동반 상승함.

한편 소비자심리지수는 4월에 52.2로 하락했으며, 이는 소비자들이 경제적 불확실성과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음을 시사함. 다만, 지표가 예전보다 나아지는 조짐도 일부 보이며 장세에 영향을 미침. 시장의 주목을 받는 테슬라는 9.8% 급등하며 지난 몇 달 동안의 하락세를 반전시켰음. 시장 전문가들은 이번 상승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완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과 맞물려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함. 이번 주간 발표될 경제 지표들이 앞으로의 흐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됨. (다우 +0.05%, 나스닥 +1.26%, S&P500 +0.74%, 러셀2000 +0.03%)

특징종목

테슬라(+9.8%)가 투자자들에게 엘론 머스크의 긍정적인 발언으로 인해 큰 관심을 받으며 주가가 급등함. 비록 지난 분기 실적이 예상에 미치지 못했지만, 머스크의 발언이 향후 전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대가 주가 상승의 원인으로 작용함. 차터 커뮤니케이션즈(+11.43%) 역시 주목할 만한 상승세를 보이며, 예상보다 적은 유료 TV 가입자 감소와 2025년을 목표로 한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및 농촌 확장 계획이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했음. 반면, 인텔(-6.7%)은 1분기 실적 발표 후 대만반도체와의 협업 가능성 우려 속에서 주가가 하락함. 알파벳(+1.47%)은 클라우드와 유튜브의 강력한 실적에 힘입어 주가를 견인하고 있으며, 자율주행차 사업의 확장 계획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음. 메타(+2.65%)도 알파벳의 실적 발표에 힘입어 소셜 미디어 주식 전반의 상승세가 지속됨. 엔비디아(+4.3%)는 인공지능 관련 기술과 강력한 시장 입지로 주가가 상승했으며, 차기

GPU RTX 5060 출시 기대감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음.

한편, 헬스피크 프로퍼티스(-5.21%)는 기대에 부합한 실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표의 부진으로 주가가 하락세를 면치 못했음. 이스트만 케미칼(-6.16%) 역시 매출 부진 속에 주가가 하락, UBS의 목표 주가 하향으로 인해 투자자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음. 이러한 흐름은 다양한 시장 비즈니스 전망과 전 세계 경제 상황에 따라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센틴(-6.3%)은 강한 1분기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비 관련 전망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주가가 하락했음. 회사는 정책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으며, 성장 기대치에도 불구하고 투자자들의 불안감이 가중된 상황임. 올드 도미니언 프레이트 라인(-8%)은 경쟁사 Saia의 실망스러운 보고서에 동조하여 주가가 하락했으며, 1분기 실적이 예상에 못 미쳐 투자자들의 실망을 야기했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채권 시장에서는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하루 동안 4.24로 6.5bp 하락하며 거래 마감함.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 협상에 대한 긍정적인 발언과 함께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가 영향을 미친 결과임. 한국 10년물도 2.58로 하락했으며, 독일 10년물은 2.47로 상승함. 외환 시장에서는 달러 강세가 두드러졌으며, 달러 인덱스(DXY)는 99.47로 0.09% 상승함. 미중 무역 협상 진전에 대한 기대감이 달러 강세를 견인했음. USDKRW 환율은 1438.49로 0.52% 상승했고, USDJPY는 143.63으로 0.68% 상승하며 전반적인 달러 강세를 보여줌. 상품 시장에서는 WTI 원유가 63.15로 0.58% 상승하여 긍정적인 무역 협상 전망에 대응한 상태임. 금은 3318.27로 0.91% 하락하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음을 보여줌. 은은 33.07로 1.63% 하락하였고, 구리는 4.84로 0.69% 하락함. 커피는 405.85로 0.1% 오르면서 주간 7.71% 상승률을 기록함. 전반적으로 상품 시장은 무역 협상과 관련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음.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